

감염병 전문병원 세번째 도전 '가시밭길' 도, 내년 국비 1조5500억원 목표

질병관리청 올해 설립 후보 지역 확대 계획
 제주, 인천과 2파전 예상서 최소 4파전으로
 평가기준도 코로나 환자 치료 실적 우선 반영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제주도의 세 번째 도전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용역 보고서대로라면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경쟁은 제주와 인천 등 2파전으로 치러야 하지만, 정부가 이 용역 결과를 뒤집고 설립 후보 지역을 더 늘리기로 하면서 경쟁 지자체도 덩달아 많아졌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6일 한리일보와 통화에서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권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설치 지역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밝힌 보고서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발표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개발 용역보고서'를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제주를 비롯해 인천, 중앙·중부,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7년 호남, 2020년 중부·영남 등 3개 권역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문병원에 차례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근 권역선정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5월쯤 네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독립적 감염병 병동을 운영하며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으로 권역 내 환자 배정과 전원 업무도 맡는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1곳당 409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음압격리병동(일반 병상 30개·중환자 병상 6개)과 음압수술실, 교육훈련센터를 갖추게 된다.

당초 질병청은 제주와 인천 등 나머지 2개 권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두 지역 실시설계비로 각각 23억원씩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넘지 못했다. 그해 초 제주 권역 설계비가 국회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두번째 도전마저도 무산됐다. 대신 국회는 권역을 특정하지 않

은채 1곳 설립에 필요한 설계비 23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따라서 올해는 이 23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제주와 인천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런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질병청이 올해 네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후보 지역에 제주와 인천을 포함해 강원과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경북과 대구를 아우르는 대구·경북 권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성이 높아지며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탓이다.

질병청이 구상한 평가 기준도 제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 환자를

많은 치료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기준 인구 10만명 코로나19 발생률은 제주가 81명으로 대구 348명, 경기 163명, 인천 141명, 경북 116명, 강원 115명 등 경쟁 지역보다 현저히 낮아 코로나 환자 치료 실적 평가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치료 실적만 따진다면 제주(감염병 전문병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름 없다"며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권역 전문병원에 전원할 수 없다. 이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500억원대로 설정해 확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정부의 뉴딜사업 본격 추진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 목표액을 상향해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목표액 1조5500억여원은 2021년 국비 확보액인 1조4839억원보다 661억원(4.5%) 증액된 수치다. 제주도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도는 국비확보의 핵심인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지사 주재로 매달 신규 사업 발굴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발굴한 주요

2021년 확보액보다 661억 ↑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500억원대로 설정해 확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정부의 뉴딜사업 본격 추진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 목표액을 상향해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목표액 1조5500억여원은 2021년 국비 확보액인 1조4839억원보다 661억원(4.5%) 증액된 수치다.

제주도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도는 국비확보의 핵심인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지사 주재로 매달 신규 사업 발굴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발굴한 주요

사업은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55억5000만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40억원 ▷공영주차장 스마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75억원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16억원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110억원 등이다.

아울러 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절충에도 나서며, 정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국가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 중심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

허법률 도기획조정실장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들면서 지자체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며 "앞으로 신규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절충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상고대 활짝 1100고지 16일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하얀 상고대가 핀 주변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만기자

올해 지방세 목표액 1조5224억원 설정

도 "다양한 세제지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1조5224억원으로 설정하고 확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리스·렌트차량 온라인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지방세수를 1700억원 이상 확충하고, 세율 특례 활용·감면 축소·과세 환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잠세세원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기 내 집중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고용 활성화 장려 및 수출·고용우수·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에도 연장 추진한다. 또 착한 임대인 감면 연장, 선별진료소 감면 유지, 세 부담 약자 대상 지방세 분납, 납기연장, 무담보 징수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도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최저 22.2%부터 최고 50%까지 인하한다.

도는 아울러 납세자 위주 세무 상담과 납세자 권의 보호를 위해 마을 세무사 21명을 운영, 일상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한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강다혜기자

해녀굿 4월까지 34개 어촌계 순차적 봉행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굿이 16일 한림읍 귀덕1리 어촌계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도내 34개 어촌계

서 봉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해녀굿은 물질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해녀공동체가 집단으로 진행하는 무속의례로, 마을어

촌계 주관으로 음력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도내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해녀굿은 용왕굿, 영등굿, 해신제, 수진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중 영등굿은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제주도로 찾아와 곡식과 해산물의 씨

를 뿌리고 15일에 우도를 통해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믿음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올해 해녀굿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고대모기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
 제주 균형 발전을 위한 선택

잠들어 있는 제주 경제와 힘을 회복시킬 최적의 선택

제2공항 "찬성"

최고의 선택입니다

TIMELESS SUN www.timelessun.com

빨강태양 주식회사 열광 종합건설 **SEL**